

송년특집 - 2003년 화학산업 10대 뉴스⑤

호남 No.3 HDPE 프랜트 폭발

“안전성 문제 급부상”

2003년에는 화학공장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줄줄이 이어졌으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밝혀지면서 안전의식에 대한 일대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월3일 전남 여주시 여천공단 호남석유화학 공장에서 대형 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호남석유화학의 No.3 HDPE 공장은 에틸렌(Ethylene)을 수소와 결합시켜 PE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폭발력이 강한 헥산이 누출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화재현장



앞서 3월12일에는 LG화학 여수공장 에틸벤젠 탱크에서 청소작업 중 탱크 내 잔류 벤젠가스가 폭발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월16일에는 현대Oil-Bank 대산공장 DCU(원유정제의 마지막 공정)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내부와 정제설비 등이 불에 타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바로 다음날인 10월17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영신화학의 규산소다 제조탱크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월20일에는 울산시 남구 여천동 SK 울산공장의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11월18일에는 충북 보은군 한화(옛 한국화약) 보은공장에서 2.7인치 로켓 탄두가 폭발하며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12월6일에는 대구시 북구 김단동 한일합섬 대구공장 원사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콘크리트 슬래트 건물 내부 4500여평과 보관중이던 아크릴원사, 부직포 완제품 2700톤 등을 불태워 총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Chemical Journal 2003/12/22>